

자
님
의
사
랑
의
숨
결
이
머
무
는
것
이
네

Sabah, 말레이시아

Kota Kinabalu Malaysia

이수민, 이민혜, 이하린 가정 기도편지 Vol 11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11월부터 연말연시를 지나 어느덧 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이곳 사역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와 새해의 시작 역시 저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걸음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감사와 기대의 마음을 담아,
이번 편지에 지난 연말연시 허락하신
사역의 소식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한 복된 날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01_추수감사주일과 감사챌린지

감사로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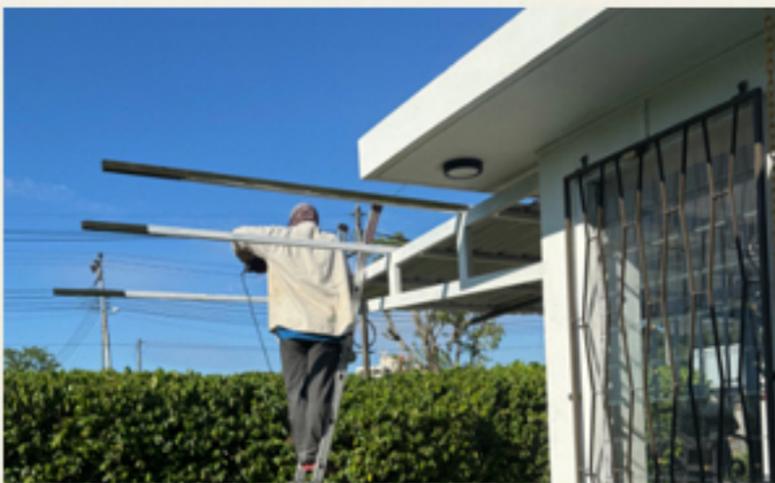
감사로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이번 추수감사절에도 변함없이 감사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매주 다른 주제로 감사의 고백을 나누며,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감사한 일은, 그동안 지붕이 없어 비 오는 날마다 불편했던 교회 입구에 지붕 보수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환경의 변화였지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다시 한 번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나눔 25

No	제목
25	감사에 대한 나눔
24	☺ 감사챌린지 ☺ 1
23	☺ 감사챌린지 ☺ 1
22	☺ 감사챌린지 ☺ 1
21	☺ 감사챌린지 ☺ 2
20	☺ 감사챌린지 ☺ 2



02_하반기 성례식

타국에서 누리는 복음의 기쁨

타국 땅에서 성례식을 진행하는 일은 언제나 귀하고 복된 은혜입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작년 행복축제를 통해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 성도들 가운데, 한 자매 성도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학습을 받았고, 또 다른 새가족 성도는 처음으로 세례를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각기 다른 자리에서 말씀과 교회 앞에 서는 그 고백의 시간이 성도 모두에게 깊은 감격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03_ 밀림선교를 위한 바자회

같은 섬, 같은 복음을 향하여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같은 보르네오섬 밀림 지역에서 사역하는 현지 목회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목회자님이 깊은 밀림으로 사역을 갈 때마다 오토바이를 빌려 이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교인이 한 마음으로 바자회를 준비하여 약 36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안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04_교회 설립 30주년 감사예배

한 자리를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

2025년은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은 해였습니다. 한 교회가 몇 해를 버티기도 어려운 시대에, 3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3년간의 은혜를 함께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05_신년감사 찬양 간증집회

다시 용기를 얻게 하신 시간

2026년은 은혜로운 찬양 간증 집회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선교모임을 통해 오신 김명식 찬양사역자님과 함께 찬송과 복음성가를 부르며, 그의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린 시간이었습니다.



07_ 이수민, 이민혜, 이하린 | 선교사 가정의 이야기

1_사역에 관한 이야기

이민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고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일이 잦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여러 가정이 이곳을 떠났고, 그 가운데 교회를 함께 섬기던 리더 가정들의 이동도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변화의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역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걸음씩 주님의 뜻을 묻고 따르려 합니다. 이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_가정에 대한 이야기

가족의 건강은 여전히 중요한 기도제목입니다. 최근 아내가 어지러움과 몸살로 주일 사역과 한글학교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무더운 환경과 잦은 냉방 속에서 더욱 조심해야 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린이는 2학년이 되어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있지만, 3개 국어로 공부해야 하는 환경은 여전히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언어의 은사를 부어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4월 말 예정된 비자 갱신 절차가 무탈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민, 이민혜, 이하린 선교사 가정의 이야기

3_재정에 관한 이야기

올해도 교회의 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여건이 쉽지 않은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배려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 변동 등으로 생활 환경에 변화가 있지만,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맡겨진 사역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제목

- 기도 하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도록
- 기도 둘** 환경보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 기도 셋** 떠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 기도 넷** 교민 사회 안에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 기도 다섯** 다가오는 행복축제와 유스코스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있도록
- 기도 여섯** 가정과 양가 식구들이 강건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사역교회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lovekkc.com) **파송단체** IGC

재정동역 카카오뱅크 3333-04-4001931 이수민

미션펀드 <https://go.missionfund.org/kkchurch>

E-mail 이수민 jlm6987@gmail.com

이민혜 mymh4860@gmail.com

카카오톡 이수민 jl6987 / 이민혜 mymh486

